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오소서 평강의 왕이시여”

성탄절 메시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성탄절이 되면 으레히 부르는 찬송이지만 부를 때마다 이 찬송은 우리에게 희망과 환희를 가져다준다. 숨겨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이 세상에 나타난 날이라 즐겁다 하겠지만 실은 이날은 무서운 날이었다. 어둠으로 인해 온갖 불안, 근심, 회의, 고독, 고통에 짓눌렸던 백성에게 갑자기 햇빛보다 더 찬란한 빛이 비쳐왔기 때문이다. 자기 존재를 위협하는 캄캄한 밤의 상황도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났을 때 심판이 다가옴을 알고 죄책감에 빠진 사람들은 더욱 무서워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무서워말라”고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명하였다.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오늘날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시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가 무서움에 차 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냉혹한 운명을 바꾸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시려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이다. 그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주신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친구로 떨시와 푸대접을 받으시며 존재의 심연 속으로 찾아오신다. 모든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잃어버린 자들과 억눌림을 받아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평화와 소망으로 찾아주신다.

예수 탄생은 결코 휘황찬란한 호사스러운 파티를 벌이는 상황 속의 사건은 아니다. 그는 우리를 가운데 오셔서 슬퍼서 일그러진 사람들의 얼굴을 펴 주시고 눈물로 얼룩져 비통해하는 자에게 웃음을 채워주

신다.

천한 자, 피로와 하는 자, 무거운 짐진 자,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 그 지위를 높여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이종윤 목사

성탄절은 숨겨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이 세상에 나타난 날이라 즐겁다 하겠지만 실은 이날은 무서운 날이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가 무서움에 차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냉혹한 운명을 바꾸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시려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평화를 주시려고 지금도 우리 중에 오시고 있다.



평화를 주신다.

이 평화는 전쟁과 대비되는 의미의 일시적이고 상대적 평화가 아니고 결코 아름다운 꿈의 평화도 아니다. 차원이 다른 영원하고 절대적인 평화다. 하늘시민이 누릴 거룩한 평화며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화다. 그리고 약속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차원의 평화다.

이 평화를 주시려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중에 오시고 있다. 이 평화를 인하여 우리에게 마지막 임종시간이 온다 해도 주님 당신만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그를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탈선된 시야를 본래적 중심으로 환원시켜 아기 예수에게 맞추어야 한다. 베들레헴 목자들처럼 겸허한 마음으로 갓난아기를 찾아가 영접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스스로의 삶을 저말구유에 누인 아기로부터 신비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차원으로 옮겨야 한다.

우리의 삶의 세계는 이 땅에 오신 그 아기가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에 오심으로 혼미한 이 세상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을 통해 보여진 사랑의 기적을 통해서만 삶의 심연에 묻힌 질문들이 풀려질 것이다.

어린 아기 예수는 오늘도 우리 곁에 오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킨 신혜와 진리의 사건이다.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경건하게 경배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가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다.

성탄절에 이 놀라운 소식을 받은 우리 서울교회 가족 위에 그리고 우리와 상관있는 모든 이들 특히 북녘땅에서 애소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영원토록 임하기를 기원한다.

성탄절 예배와 행사

성탄축하찬양예배와 성탄전야 재롱잔치

성탄절 오전 5시 새벽예배

성탄절예배 25일(수) 11시에 한차례만

성탄헌금은 대내외 구제에 활용기로

■ 성탄축하찬양예배

22일(주일) 오후 5시

가브리엘 찬양대가 주관하는 성탄축하찬양예배가 22일(주일) 찬양예배시간에 드려진다.

크리스마스 캐롤과 영광송(Gloria)을 중심으로 아기예수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다.

■ 성탄전야예배

24일(화) 오후 7시

교회학교 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이 성탄절 이브를 찬양과 율동, 성시낭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민다.

24일 밤 7시 온 가족과 함께 1층 예배실에서 경배하며 찬양가득한 성탄절 전야를 보낼 수 있다.



■ 성탄절 새벽예배

25일(수) 오전 5시

성탄절인 25일(수) 새벽에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별을 보고 찾아와 경배하던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성탄절 새벽예배는 평소와는 달리 5시에 드리게 된다.

■ 성탄절 감사예배

25일(수) 오전 11시

성탄절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린다. 예배위원회에서는 1, 2층예배실 뿐 아니라 3층과 4층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성탄절 예배 시간에는 성탄감사헌금도 드린다. 구제위원회에서는 성도들이 드리는 이 성탄헌금을 우리 교회 내외 반포동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용하기로

하였다.

올해의 성탄절은 수요일에 맞는데 평소의 수요일과는 달리 예배는 오전 11시에 한차례만 드리며 오후 7시에 드리던 수요일부 예배는 없다.



송구영신예배

'96를 마무리하고 '97년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 예배가 1997년 1월1일 0시에 교회당에서 드려진다. 예배는 0시 정각에 타종과 함께 소등한 상태로 시작된다.

교우들은 예배시작 30분 전에 미리 착석해 지난 날을 생각하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된다.

★ 대강절에 ④

'예수'의 이름 속에 담긴 복음

이 세상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복되고 영화로운 이름은 '예수'란 이름이다. 이 이름 속에는 전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이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으며 아버지의 꿈과 소망과 사랑을 그 이름 속에 담아 넣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 천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통보한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21).

'예수'란 이름 속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아웨)'와 '구원·구원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예수'의 이름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인간 사랑과 구원의 의사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 고귀한 이름 예수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기도 하지만 이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이 이름 앞에서는 사탄도 두려워 떨며 천사들도 머리 숙여 경배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 예수의 이름(빌2:9) 속에 예수 탄생의 축복이 담겨있는 것이다.

★ 영적인 크리스마스를 위해

예수님께 드릴 선물

많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관습이 이 날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일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기억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그 선물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기간을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이 지나다보면 우리는 때로 이 특별한 날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아침, 모든 선물이 받을 사람에게로 다 돌아간 다음 한 아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의 표정을 보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를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예수님 생일 아니야?"

"물론이지, 네 말이 맞아."

"그럼 왜 우리 예수님께 선물을 안하는 거야?"

이번 크리스마스 계절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생각할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우리의 삶 전체를 정성껏 드리고 그의 길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더 말씀 드릴 기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물이 아닐까요?

<다락방>에서



✧ 순례자 컬럼 ✧

"기쁘다 구주오셨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며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이 도덕이요 종교이며 상식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어 세상에 오시되 섬기러 왔노라 하셨으니 이것은 신비다. 높아질 줄만 알고 받기만을 좋아했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닮아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주는 삶을 살 때 비천한 말구유 위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인간이 신에게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 크리스마스다. 이 절기를 너무 미천하여 채 눈에 띄지도 않던 우리 주변의 슬한 소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찾아가는 계절로 삼자.

낮은 곳으로 비강해 오신 그리스도처럼 희생과 섬김과 용서가 있는 성탄절을 만들어 모두에게 축복의 계절이 되게 하자.

세밀에서

1997년도 권사회는 이렇게



“젊은 권사회”로의 과도기로

권인화 (권사, 권사회회장)

5년 전 서울교회는 권사들의 눈물과 힘을 바탕으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서울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더욱 충성 봉사해야겠지요.

그러나 70대의 노인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가 많아요. 하루 하루가 새롭고 기억력도 자꾸 떨어지고 일을 하는 데 추진력이나 박력이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1997년 한 해를 1998년도엔 젊은 권사회를 만드는 일의 과도기로 생각하고 일하려고 해요. 무슨 말이고 하니 1998년도에는 지금까지 권사들이 담당해왔던 교회의 이런 저런 일들을 50대나 60대 초반차세대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한다는 것이지요. 늙었기 때문에 일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머니로서 기도 에 더욱 힘쓰고 현명하게 처신을 하되 실제

교회의 어머니로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세미나 때 김밥 싸는 일일랑 우리가 책임집니다.

로 몸으로, 힘으로 해야하는 봉사는 젊은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이 맘껏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며 또 그 일을 잘 수행하도록 뒷받침을 해주겠다는 거지요.

제 나이 68세로 교회 안에 나이 많은 권사와 젊은 부녀자들의 교량역할을 지혜롭게 담당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약하나마 능력주시는만큼 힘써서 일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들이야 이제 나이 많아 몸으로 무엇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신학세미나 때 김밥 싸는 일도 저희들 몫으로 알고 이것도 책임질 것입니다.

교사로 임명을 받고서

세가지 결심

이제는 좀더 적극적인 신앙인으로

하나님 말씀 더욱 사랑하기

매일 생명일기 쓰기

학생들과 같이 호흡하는 교사되기...

지난 12월 15일은 나의 신앙생활에 하나의 큰 획을 그은 뜻깊은 날이었다. 지금까지 단 순히 말씀을 듣고 배우기만 하던 수동적 신앙인의 위치에서 이제는 대학부 교사로서 학생들과 찬양·예배, 성경공부, 신앙상담 등 다양한 만남을 통한 적극적인 신앙인의 위치로 바뀌어 날이였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교사생활이 시작되기까지는 아직 2주일 가량이 남아 있지만 새해를 시작하는 대학부 교사로서의 다짐은 이미 이날을 기해 시작되었다. 특히 귀한 생명들을 맡아 지도한답시고 그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망정 혹 나 때문에 실망하거나 주님 품을 떠나가는 학생이 있더라도 한다면 이는 차라리 연자뱃돌을 목에 메고 물속에 뛰어드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경고의말씀이 더욱 각오를 단단히 하게하는 계기가 되었다.

첫째, “하나님 말씀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 기독교인으로서 가

이왕건(집사, 대학부 교사)



장 기본이 되겠지만 성경통독과 함께 부분별 집중연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하고 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둘째, 사랑의 기도제목으로 가득 찬 “생명일기”를 써 나가겠다. 일년이 지나면 잊혀지고 거의 쓸모없는 회사 업무용 수첩에만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묵상한 내용과 기도제목으로 가득 찬 일기책, 과연 ‘생명일기’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일기쓰기를 시작해야겠다.

셋째, 대학부 교사로서 학생들과 호흡을 같이하는 교사가 되겠다. 주일 오후 대학부 모임은 물론 주중에 있는 동기생 모임, 수련회 등 각종 모임에 최대한 참가해 말씀과 기도, 찬양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은혜를 받는 계기로 삼겠다. 무엇보다 한사람 한사람을 위해 자주 기도할 수 있는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이상의 새해 신앙생활 각오가 꼭 이뤄지도록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울러 주위 분들의 관심과 격려도 기대해 본다.

송규영신의 기도

세포 하나까지도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김시환

(집사, 예배위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을 준비를 하는 이시간
주님 앞에 겸허하게 하소서.

삶의 순간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작은 세포 하나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한마리의 고기가 없을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 오른편에
다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용기와 순종의 마음을 주소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참 만족과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인격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부유하게 살기보다는 바로 살게 하시고
침묵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생활이
계속되게 하시고
이제 돌아올 새해에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영광의 주님이 다스리시는
사랑과 평화와 정의의 나라,
천군천사 모든 족속 무릎 꿇고 찬양하는
영광의 그나라 속히 오게 하시고
당신과 그 나라를 갈망하는 나의 마음을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

한해를 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언

“
차

대로 변엔
한 줄로 세웁시다



이승우
(집사, 차량관리위원)

강남대로변에 위치한 우리교회가 교회 건물 내에 충분한 주차시설도 갖추지 못한 형편인 것에 비하면 현재 주차 질서는 매우 잘 지켜지고 있는 편입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일예배가 마친 후 이중 주차를 하시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가족들을 기다리거나 태우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고들 합니다.

저희교회는 주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교회 앞 강남대로의 한 개 차선에 한하여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서초구청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약간의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차량관리위원회에게는 여간 신경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중 주차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중 주·정차는 삼가주십시오. 가족들과는 원래 주차해 놓은 지점에서 만나기로 한다든지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도 차를 안전하게 댈 곳을 정하여 예배 후 그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시면 어떨까요.

저희 차량관리위원 모두는 앞으로도 차를 가지고 오시는 성도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예배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횡단 보도나 교회 앞 보도에서 안전하게 보행하실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1997년도 전도위원회

지 도 원 호 목사 위원장 김 태 기 장로

남선교회 임원

부서	제1지회	제2지회	제3지회	제4지회	제5지회	제6지회
요한	회장 구동철 부회장 황재목	최차순 정동호	김시환 이구연	유형석 정세형	박동식 이중호	김재우 성준모
베드로	회장 허상한 부회장 최광성	손병석 우지원	박정수 차광만	조정식 이태원	신웅식 윤성남	박금재 임상현
바울	회장 나중영 부회장 임옥균	정용철 임훈규	탁경준 박동춘	윤운식 김승현	김영화 유 신	김형택 신순우
모세	회장 부회장		이상운 이덕빈			

여전도회 임원

부서	제1지회	제2지회	제3지회	제4지회	제5지회	제6지회
마리아	회장 금용숙 부회장 서희숙	백혜숙 이현주	성수영 노정숙	이명아 김영미	한화선 금미선	김혜련 조선영
루디아	회장 이영희 부회장 남태순	박우옥 이안순	성순자 박창희	김영식 서필영	박연순 이순영	김양숙 송숙영
에스더	회장 이순례 부회장 이은희	김윤자 홍계식	정정숙 손재경	강희자 임윤자	김순자 권순단	김정수 전정순
한나	회장 부회장	원복순 유후자			김중복 백영희	

■ 이중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목회자·교우동정 ■

* 우리교회 교역자세미나가 26일(목) ~ 27(금)까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강의와 기도회를 통해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1997년도 우리교회의 예배·교육·선교 등 교회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 박정선 집사(할렐루야찬양대 지휘)는 17일(화) 예술의전당 음악당에서 공연한 수원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에서 창작합창곡 영광(Gloria)을 발표하였다.

■ 특별기도를 요청합니다 ■

신성미양(중등부 2학년)은 뇌종양에 걸려 투병 중이다. 신앙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병문안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오히려 큰 위안과 도전을 주고 있다.

또한 신앙은 시집갈 때 가져가려고 간직했던 돌반지 등 약 2양의 금을 교회건축헌금으로 바쳤다.

현재 사랑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신정순 집사의 외동딸인 성미 양의 쾌유를 위해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가 요청된다.

■ <순례자> 원고 및 의견을 기다립니다. ■

- 전화: (02) :517 - 7651 / 교회(김명현 목사)
- 팩스: (02) :516 - 9641 / <순례자>편집실
- 처리인ID: pek9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평화의 왕께 자신을 드리는 영적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2. 1997년도에 새로 임명을 받는 전도회 임원들을 위하여
3. 우리교회 교역자들을 위하여
4.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하여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